

人文論叢

79권 4호

2022년 11월

기획 논문 2

기획의 말

/

반지성주의를 묻다

세계화를 추동하던 신자유주의가 지배하고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모든 것에 우선하던 시대가 마감되어 가고 있는 지금을 우리는 수십 년 후에 무엇이라고 부를지 모른다. 미국 주도의 시장경제 질서와 민주주의의 보편성이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주장할 필요조차 없던 시대에는 선부른 “역사의 종말”을 노래하는 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세계화를 추동하고 그 질서를 관철시키던 패권국 미국 안에서 그 힘과 논리가 무너지는 현상을 우리는 함께 목격했고, 이는 미국에서만이 아닌 전 세계의 지성에게 충격을 던져 주었다. 오래되어 너무나 익숙하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 인간의 합리성이 가진 참모습이자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현실을 설명해야 한다는 과제가 다시 절실했다. 미네르바의 부영이가 황혼이 지나고 가야 날기 시작한다는 헤겔의 경구는 그 부영이가 어디로 날아가는지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지는 않다. 역사적 경험에서 보자면, 미네르바의 부영이는 날아본 적이 있는 방향을 택하는 것에 익숙한 듯하다.

그래서 근대적 합리성에 대한 확신이라고는 크게 남아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보이던 지성계는 비합리성의 구체화이자 현실화에 충격을 받은 듯했고, 미국 내 정치 판도의 변화와 이에 맞물린 세계질서의 재편을 바라보는 틀로 1963년 리처드 호프스태터가 출간한 『미국의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 in American Life)를 소환해 냈다. 비이성적 반공주의의 흐름 안에서 그 뿌리를 미국 건국기부터 이어져 온 지성주의와 반지성주의의 대결

구도 안에서 파악해 낸 이 저작의 통찰은 분명 인류사의 보편성과 미국사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반지성주의’의 틀이 미국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벗어났을 때 무엇을 보여 줄 수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했다. 통일성을 가진 시공간과 맥락의 배치보다는 반지성주의의 틀 자체가 얼마나 다양했는지부터 그 틀들이 보여 주었던 역사적 현실들의 다양성까지 두루 살펴보고자 했다.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은 2021년도 기획연구 주제로 ‘반지성주의’를 잡았다. 1학기에 내부 워크숍을 통해 주제를 가다듬은 뒤, 10월에서 11월에 걸쳐 연속 콜로키엄 “반지성주의와 인문학”을 여섯 차례 가졌고, 12월 15일에는 심포지엄 “반지성주의와 근대사회”를 개최했다. 연속 콜로키엄과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글 가운데 세 편을 ‘반지성주의를 묻다’라는 특집으로 묶어 함께 신게 되었다. 인문논총 78-4호에 실린 「여성문학과 반지성주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경하), 79-2호에 실린 「근대성에 대한 대항으로서 신종교, 거기에 스며든 반지성주의: 이돈화의 『신인철학』을 중심으로」(이혜경)도 같은 기획연구의 성과임을 밝혀둔다.

강성용·홍종욱